

전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완료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형 창작지원사업 개발·맞춤형 예술인 지원사업 마련 위해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형 창작지원사업 개발 및 맞춤형 예술인 지원사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인 '2022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예술인복지법과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 도내 예술인 3천여 명의 DB가 구축됐다. 실태조사에는 1,119명이 참여했다. 조사내용은 예술활동, 예술공간, 고용형태, 생활 및 복지 등 총 6개 분야 46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북지역 예술인의 주요 예술활동 지역은 전주시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익산 24.9%, 군산 22% 순이었다. 또한 전북 예술인들이 원하는 복지 1순위는 예술창작지원 78.4%, 2순위는 생활 안정 지원 68.9%로 나타나 창작지원을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예술관련 지원예산 부족 21.5%, 창작물 발표 기회 부족 15.9%, 경제적인 어려움 14.3%였다. 특히 도내 예술인들은 전북 예술활동 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가운데 작품 판매시장 등 예술산업에 대한 불만족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단은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도출을 위해 지난 28일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예술인들의 힘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예술인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전북 예술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www.jbtor.or.kr) 아카이브-정책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마음 수련의 화제 사군자 기획 전시 - 겨울 지나, 봄'

태권도진흥재단, 5월 28일까지 총 100여점 진귀한 작품 전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봄을 맞아 '마음 수련의 화제 사군자 기획 전시 - 겨울 지나, 봄'을 5월 28일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관장 김태균)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청림의 품격을 지닌 봄의 상징 '매화'와 '난', 늦가을 추위에도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만개하는 '국화', 겨울 한가운데 외로이 푸르른 자태로 곧게 뻗은 '대나무' 등 사군자의 인품으로 비유하며 그려진 사군자 작품을 전시한다. 기획전에는 만해기념관 소장 근대 서화가 작품 55점과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의 회화 작품과 기구 20점, 국립전주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상감청자와 청화백자 15점 등 총 100여 점의 진귀한 작품이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히 박성선 작가의 인터랙티브 영상 작품 '바람 부는 대나무 숲'은 작품 앞에서 움직이면 대나무들이 반응해 함께 움직이는 등 색다른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오용환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근대 서화가들의 사군자 작품과 사군자가 그려진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재단은 문화 예술 발전과 신진작가 전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문화를 태권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태권도원이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의 역사, 문화, 인물 등 태권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박물관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목공예 '원목 도마 만들기' 체험행사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4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로 목공예 '원목 도마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박물관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오후 1시와 4시 열린공간 온에서 열리는 이번 체험행사는 성인 대상으로 회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참가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예약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원목 도마 제작에는 향교 작용이 가능한 호주산 캄포나무를 재료로 사용해 안전하면서도 이용하기 편리한 손잡이를 디자인 해

일상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나무의 결을 살리는 사포질 작업을 배우면서 원목 특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천연 미네랄 오일을 바르는 마감 작업과 자신만의 상징을 새길 수 있는 각인 작업 등 목공예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지난해 목공예에 대한 관람객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시 하고 싶은 공예로 꼽혔다"면서 "특히 도마 만들기 요청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체험행사를 마련했으니 재능도 살리고 즐거움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 옥천골·섬진강 미술관 기획전시

4월 1일부터 김정훈 관장 추모 전시회·봄바람의 나른함 각각 개최

순창 옥천골미술관과 섬진강미술관에서 4월 기획전시회를 연다. 순창군 순창읍에 위치한 옥천골미술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김정훈 관장 추모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 옥천골미술관 관장이었던 김정훈 작가는 2016년부터 옥천골미술관 개관과 함께 미술품 전시 및 기획 담당자로 활동했다. 이번 전시는 순창 출신 조형작가 김정훈(故)의 1주기를 맞아 김정훈과 그의 동료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작가는 순창과 관외 명망 있는 작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유치하여 옥천골미술관과 순창의 문화예술 발전의 토양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고 그 6년여 과정을 공유하는 작가들의 추모행식으로 기획됐다. 적성면에 위치한 섬진강 미술관에서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립미술관 소장작 '봄바람의 나른함'이 오는 4월 1일부터 열린다.故 윤재우 작가는 한국의 마티즈라고 불리는 서양화 1세대 작가이며 대체로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화면의 색과 형태의 조형 요소를 잘 구사하여 개성 넘치는 작품을 그려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골 미술관(063-650-1638)·섬진강 미술관(063-653-2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라북도 문화·예술·관광·산업 분야 진흥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유망 스타트업 창업 생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

에 대한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그리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내 창업 기업들의 성장 시스템 구축 및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